

아동기 외로움 관련변인 연구

A study on the loneliness of childhood and related variables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복지정보학과

석사 김성해

부교수 송순

College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Wonkwang Univ.

Graduate student : Kim, Seong Hae

Associate Professor : Song, So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 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ed on the loneliness of childhood and related variables. 400 boys and girls were sampled for this study that they are elementary school 5th 6th located in IK-San, Kim-Je city. Survey was condu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380 questionnaires were finally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data analysis with SPSS Computer program were frequency, percentage, mean, T-test, one-wa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ed in children's loneliness according to father's education, father's job mother's education, school grade, name satisfaction, body satisfaction, siblings, close relation friend number, family harmony, parent's love-acceptable.

2.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ed in children's loneliness according to peer status degree (popular isolation aggression). Higher popular children was perceived lower in loneliness than lower popular children. Higher isolation children was perceived higher in loneliness than lower isolation. Higher aggression children was perceived higher in loneliness than lower aggressive in loneliness.

3. In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influence on the loneliness be presented as follows in order of importance ; peer status of isolation degree popular degree mother's job of self business, parent's love-acceptable, friends number.

The result the above study indicates that peer status family harmony, parent's love-acceptable, child's psychological/ environmental variables influences on the loneliness but essential variables are influences peer status on the loneliness.

◆ 주요어: 외로움, 또래지위

I. 서 론

현대의 아동들은 가족수의 감소와 가족구조의 변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높은 자녀 교육열, 어머니의 취업증가, 형제수의 감소추세와 도시화 등으로 인한 개별적 행동의 증가로 외로움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특히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그의 사회적 환경은 가정에서 다른 사회집단으로 확대되고 가족 이외의 또래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더 일찍이 더 많은 시간을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아동의 또래와의 관계는 아동의 발달적 맥락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초등학교 시절의 아동의 인기도가 연령이 증가해도 인기 있는 아동으로 지속되고 빈약하고 고립상태에서 아동기를 보내게 되면 성인기에 부적응 행동, 반사회적 행동, 정신병적 증상을 겪는다고 한다 (황경미, 1998). 학령기 때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앞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사회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학령아동기의 외로움과 또래관계 경험은 성인기 사회생활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비인기이는 인기아보다 자퇴, 비행, 타락, 범죄, 정신질환, 자살, 약물복용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외로움, 우울, 사회적 불만 등 정서적인 불안 증상도 빈번히 나타나고(Parker & Asher, 1987) 또래들 사이에서 고립과 인기상실은 또래 괴롭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Olweus, 1993). 또래괴롭힘은 아동의 외로움이나 불안에 영향을 미치며(최보가·임지영, 1999) 아동의 외

로움은 고립이나 소외감을 의미하며 이러한 고립은 또래괴롭힘이나 따돌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외로움은 특정형태의 관계부족으로 나타나며 친밀한 애착관계나 의미 있는 우정, 사회적 관계의 부족에서 생기는 감정으로 청소년들 가운데 20-50%정도가 경험을 한다고 한다. 부모-자녀관계가 빈약할 때 청소년들이 외로움을 보다 많이 경험하고(Shaver & Rubenstein, 1980) 비교문화적 연구에서도 부모와 만족할만한 관계를 갖지 않았던 청소년들이 대학생활에서 심각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였다(Hojat, 1982).

고등학생들의 외로움은 그 원인이 부모, 가족보다는 교우관계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즉 교우관계와 친구에 의한 평가가 외로움에 결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Goswick & Jones, 1980).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는 부모-애착보다는 또래관계와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으며 인기도와 외로움의 관계 (정영인, 1988),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도현심, 1996)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박선영·도현심, 1998)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도현심, 1999) 등이 있다.

그러나 앞의 연구들이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변인들을 선택적으로 모델 속으로 도입하여 단순변이분석에 의해 분석을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들을 문헌고찰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종합하여 선택하고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들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 후기의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부모로부터 또래들에게로 이전되는 시기임을 참조하여 사회인구학적

심리환경적 요인들과 별도로 또래지위와 아동의 외로움과의 관계를 측정해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사회 인구학적 심리환경적 요인들과 또래지위를 종합하여 독립변수들을 순차적으로 통제하면서 이들이 외로움이라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학교생활에서 적절한 행동유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경험의 예방·중재를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외로움의 개념

오랜 기간동안 외로움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외로움이 정의되었는데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자 하는 욕구가 좌절됨으로써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정서상태' 또는 외로움은 '특정 형태의 관계 부족으로 나타나며, 많은 경우에 친밀한 애착관계의 부족과 의미 있는 우정의 결핍 사회적 관계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으로 생기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였다(Weiss, 1973). 외로움 감정은 인간의 사회적 상호관계의 양과 관련되어 있으며 외롭다고 보고한 응답자들은 타인과 자주 접촉하지 않고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적은 편이다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B. 1980).

유아들과 1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로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동들은 '슬프고 외로운 감정'이라고 보고하였고, 외로움을 어디에서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도 놀아주지 않을 때' 느낀다고 하였다 (Cassidy & Asher, 1992). 고학년 아동들은 외로움을 '불쾌한 감정, 슬픔과 지겨움의 단어들로 표현하였는데 '혼자 버려진 느낌' '아무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 '자신이 주변인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막다른 곳에 몰린 것 같아 느끼는 것' '혼자 남겨졌고 어딘가에 갇혀있는 것 같은 것' '이 세상에 남겨진 마지막 한 명'

'항상 어둠 속에 있는 것'으로 말하였다. 이처럼 아동들의 외로움에 대한 보고와 성인의 보고가 매우 유사하였는데 아동들의 상황과 사건들이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것과 성인의 상황과 사건이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하였다 (Jones, 1985).

외로움을 '사회적인 외로움'과 '감정적인 외로움' 사이에 논리적인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사회적인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부재의 결과로 기인하거나 그룹의 부분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즉 사회적인 외로움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Weiss, 1973). 감정적인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애착에서 근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진정으로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다 (Russell et al, 1980).

사회적 상호관계의 어떠한 측면이 특히 외로움 감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친밀관계를 이끌어 주는 한 요인인 자기노출이 외로움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자기 노출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친구들에 대해 자기노출이 적을 때 더 외로운 감정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Solano et al, 1982). 이상을 종합하여볼 때 외로움이란 사회적 관계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정서적 결핍 상태라고 정의해볼 수 있겠다.

2. 외로움 관련변인

성별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은 또래경험(또래공격성,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유의한 성차를 나타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또래 공격성을 나타냈으며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로움의 경우에는 남·녀 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도현심, 1999).

초등학교 4·5·6학년(연령 9~13세)정상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들의 생활과 관련된 연구에서 편부모 또는 재혼가정의 남아들(편부모가정 29.2%, 재혼가정 28.6%)보다 더 많은 여아들이(편부모가정 50%, 재혼가정 66.7%) '학교에서 외롭다'라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고립감에 대해 편

부모가정(남아 25.0%, 여아 40%) 재혼가정(남아 28.5%, 여아 44.4%)아동이 고립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혼가정 아동 중에 ‘학교에서 외롭다’에 부이별 가정(남아30% 여아46.7%) 아동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고, 모이별 가정에서 남 18.2%, 여아63.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황옥자, 1980). 따라서 가정형태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은 정상가정보다 편부모가정 또는 재혼가정아가 더 외로움을 느낄 것이며 성별에 따른 외로움은 남아들보다는 여아들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거나 또는 부모와 관련되는 변수들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매력 있는 아동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Lerner&Lerner, 1977)남 ·녀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매력 없는 또래보다 신체적으로 매력 있는 또래를 더 좋아하였다(이선경, 1986).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감과 직접적으로 강한 관련을 가짐(양계민, 1993)으로 외모만족 여부는 아동의 외로움과 관련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의 관계는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기능보다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박선영 · 도현심, 1998). 가족기능과 남녀 청소년의 외로움과의 관계는 가족원들간에 응집성이 낮고 갈등이 많으며 사회성이 적고 권위주의적이며 역기능적인 가족 출신의 청소년일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박선영 · 도현심, 1998).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외로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는 외로움에 대하여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이 갖는 상대적 영향력에서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더 커서 가족기능은 외로움에 대해 직접적 영향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며 여학생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이 아무런 매개효과를 갖지 않았으며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이 외로움에 대해 갖는 영향력이 비슷하였다(박선영 · 도현심, 1998).

부모의 양육행위와 아동의 외로움간의 관련성 연구에서 아버지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어머니의 온정성 및 통제성 등의 4가지 양육행동 변인들간에 아동의 외로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온정적일수록 여아의 경우 아버지가 온정적일수록 외로움을 낮게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통제성은 남녀 아동의 외로움을 유의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도현심, 1996). 여기에서 온정성이란 자녀를 승인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며 애정을 표시하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고자 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하는 것(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으로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에 대해 수용적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양육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래집단과 아동의 외로움과의 관계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사춘기전 또래관계에 중요성을 두고 또래관계와 외로움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연구에서 상호적인 또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아동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Sullivan, 1953).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인기도와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아동의 사회축정적 지위와 크게 관련이 있었다. 사회축정적 지위가 낮은 아동일수록 외로움과 사회적 불만족의 감정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sher, Hymel & Renshaw, 1984)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또래에 의해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아동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거부된 아동의 경우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또래에게 거부된 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또래에게 부정적 행동을 보이고 사회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여러 문제행동을 나타낸다고 한다 (Coie J. D., Dodge, 1982). Stein 과 Hymel의 연구에서도 거부당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외로움의 감정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또래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동일수록 또래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아동들보다 더 큰 외로움을 표현한 것이다 (Asher, 1990).

또래지위집단과 성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차이는 고립아동과 공격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자기평가에서 외로움과 우울을 더

자주 경험하였고 자기가치를 낮게 인식하였으며 학교의 친구와 형제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부분적인 대체지지원이었다. 학교 외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한 고립아동과 공격 아동은 학교 외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한 아동보다 외로움을 더 자주 경험하였고 수동-공격적이었다(최용주, 1992).

형제친밀도와 아동의 외로움의 관계에서 형제의 사회적 지지는 고립아동과 일반아동에서 부분적 효과가 있었는데 고립아동의 경우 아버지 평가에 대한 불안에서 형제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불안하였고 일반아동에서는 형제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외로움과 우울을 더 자주 경험하고 자기가치를 낮게 평가하였다(최용주, 1992).

또래로부터 고립되면서 아동들은 외로움과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고 불규칙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보이게 되고 결국은 새로운 대인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Kenneth H Rubin Hildy S. Ross, 1990). 또래집단에서의 인기아동은 또래의 인정을 받으므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보다 성숙한 행동을 보이게 되지만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아동은 부정적 행동을 나타낸다(이은해·임연진, 1994). 또래괴롭힘과 아동의 외로움의 관계는 또래괴롭힘 중에서도 관계적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함, 명백한 괴롭힘 순으로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다(최보가·임지영, 1999).

외로움과 우정의 역할에서 외로움은 전체동료그룹에서 동료거절의 가혹함과 지속기간과 관련 있을 뿐 아니라 거절당한 아동이 학교에서 적어도 한명 이상의 친구를 갖고 있느냐와 관련된다(Coie & Dodge, 1983). 반에서 최소한 하나의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정신적 버팀목의 중요한 원천을 제공해주며 이러한 경우 전체에서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아이 일지라도 그다지 감정적인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갖는 것과 인기 있는 것은 아동들의 자기가치에 대한 정서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며(Bukowski & Hoza, 1989) 초등학생의 자기가치에 대한 느낌은 학급 내 상호관계에 있는 최소한 한명의

친구를 가짐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친구를 갖는 것과 아동의 외로움간의 영향력은 아동들이 그들의 동료들 중에서 함께 있음으로 인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친구의 수와 관련이 있으며 외로움과 주관적으로 보고한 우정관계망과의 관련성보다 더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Cohn, Lohrmann, and Patterson, 1985).

아동은 그들이 받는 수용도에 따라서 외로움을 다르게 느끼고 있었는데, 낮은 수용을 받은 아동이 높은 수용을 받은 아동과 중간수용을 받은 아동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아동이 스스로 느끼는 외로움은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않았거나 친구가 적거나 친구와의 중요한 상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이현정, 1994). 또래수용정도가 낮은 아동이 단짝친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한 아동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외로움이나 우울, 학교 부적응과 비행 등의 부정적 결과가 완화된다고 한다(Parker & Asher, 1987). 또래지위를 통제하고 친밀한 친구관계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친밀한 친구를 가진 아동이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했으며 더 이타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Manarino, 1978).

이상의 문헌과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하여 아동기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을 정하고 아동의 외로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의 외로움은 사회인구학적, 심리/환경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외로움은 또래지위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중인

400명을 대상으로 2000년 7월5일~13일까지 연구자가 직접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5,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친구관계에 민감하다는 연구 (최용주, 1992)와 질문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답할 수 있는 학년이기 때문이다. 조사지역은 1시, K시 두 곳을 중심으로 K시 5, 6학년 200명과 1시를 대표하는 5, 6학년 200명으로 총 400부를 배포하고 이 중 기재가 부실한 20부를 제외한 380부(95.5%)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조사도구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아동 스스로 응답하는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구성내용은 가족분위기 6문항, 부모의 사랑-수용 10문항 아동의 또래지위를 파악하기 위한 18문항, 외로움에 관한 20문항,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13문항으로 총 6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C 7.5+ Win-

dow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문항 전체에 대한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평균값 등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결과를 사용하고 가족분위기, 부모의 사랑-수용, 또래지위 지각 정도와 외로움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외로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알아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Spearman의 상관계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는 가족의 의사소통과 부모의 사랑-수용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0.4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 심리 / 환경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

사회인구학적 · 심리환경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외

<표 1> 측정도구들

도구	문항수	범위	평균값	신뢰도값	도구의 출처
가족분위기	6	6-24	3.25	.67	임경원(1997)이 사용한 척도
부모의 사랑수용	10	10-50	3.85	.81	심옹철(1992)이 사용한 척도
또래 지위	인기	5	5-20	.80	Mastern, Morison & Pellegrin(1985)이 개발한 역할분류 측정도구(RCP)와 Perry & Kusel(1988)의 또래공격성과 도래희생성의 번안문항을 기초로 아동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질문지를 수정
	고립	3	3-12	.70	
	공격	5	5-20	.74	
외로움	18	18-72	1.85	.87	Russell, Peplau & Ferguson.(1978)이 고안한 아동의 사회적인 고립감측정도구 20문항을 요인분석하여 18문항을 분석에 사용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80)

변수명	집단	백분율(%)	변수명	집단	백분율(%)
성별	남학생 여학생	50.3 49.7	학업성적	상 중 하	32.6 52.9 12.6
학년	5학년 6학년	55.3 44.7	이름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정말 만족한다	17.1 37.1 45.5
가족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기타가족	76.3 15.5 8.2	외모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정말 만족한다	32.4 53.9 12.6
형제순위	첫째 중간 막내 외동	45.0 17.6 32.6 4.5	친구수	1-2명 5-8명 9-10명	13.4 24.7 61.6
부	연령	40세 이하	친하지 않다	28.4	
		41-44세	친하다	33.4	
		45세 이상	정말 친하다	36.6	
	학력	중졸 이하	상(21-24점)	31.8	
		고졸	중(19-20점)	28.9	
		전문대졸 이상	하(11-18점)	38.9	
	직업	생산직	부모의 사랑-수용	상(41-50점)	33.2
		자영업		중(37-40점)	27.9
		농업		하(18-36점)	38.7
모	연령	40세 이하			
		41-44세			
		45세 이상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직업	가정주부			
		생산직			
		자영업			

로움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 (일원변량분석),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외로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아버지 연령, 학력, 직업, 어머니 학력, 학업성적, 이름만족도, 외모만족도, 친구수, 형제친밀도, 가족분위기, 부모의 사랑-수용 등이었다. 변인들을 자세히 살펴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외로움정도

		외로움		
		M (SD)	F	D
성별	남학생	1.86(.53)	.01	
	여학생	1.87(.49)		
학년	5학년	1.83(.51)	3.1	
	6학년	1.92(.52)		
가족형태	핵가족	1.85(.53)	.71	
	확대가족	1.89(.49)		
	편부편모가족	1.95(.36)		
아버지 연령	40세이하	1.92(.53)	3.2*	ab
	41-44세	1.79(.49)		a
	45세이상	1.94(.53)		b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2.21(.52)	11.4***	b
	고졸	1.84(.47)		a
	전문대졸이상	1.78(.55)		a
아버지 직업	생산직	1.95(.47)	2.53*	b
	자영업	1.94(.52)		b
	농업	1.85(.48)		ab
	사무직	1.77(.48)		a
	전문직	1.77(.68)		a
어머니 연령	40세이하	1.88(.52)	2.41*	ab
	41-44세	1.78(.49)		a
	45세 이상	2.03(.48)		b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2.06(.58)	4.91**	b
	고졸	1.87(.48)		a
	전문대졸	1.77(.55)		a
어머니 직업	가정주부	1.85(.51)	1.83*	ab
	생산직	1.89(.51)		ab
	자영업	2.05(.62)		b
	농업	1.94(.56)		ab
	전문직	1.76(.43)		a

*p<.05 **p<.01 ***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외로움 지각정도는 (남학생의 외로움 평균값 1.86, 여학생 1.87)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 학생의 외로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도현심, 1999)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년에 따른 외로움 지각정도의 차이는 (5학년 1.83, 6학년 1.92) 6학년의 외로움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는데 학년이 높은 6학년이 5학년에 비해 외로움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되지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형태에 따라 외로움의 평균값은(편부·편모가

〈표 4〉 심리/환경적 변인에 따른 외로움

		외로움		
		M (SD)	F	D
형제 순위	첫째	1.87(.53)		
	중간	1.93(.47)		
	막내	1.81(.52)	1.13	
	외동	1.99(.41)		
학업 성적	상	1.72(.48)		a
	중	1.90(.50)	9.0***	b
	하	2.05(.55)		c
이름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	1.98(.60)		b
	만족한다	1.92(.50)	5.89*	b
	정말 만족한다	1.77(.47)		a
외모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	2.06(.52)		c
	만족한다	1.81(.49)	17.0***	b
	정말 만족한다	1.61(.43)		a
친구 수	1-2명	2.27(.60)		c
	5-8명	2.03(.45)	36.3***	b
	9-10명 이상	1.71(.45)		a
형제친밀도	친하지 않다	2.00(.51)		b
	친하다	1.94(.53)	15.7***	b
	정말 친하다	1.68(.44)		a
가족분위기	상	1.67(.48)		a
	중	1.90(.47)	22.6***	b
	하	2.07(.50)		c
사랑-수용	상	1.69(.48)		a
	중	1.84(.47)	24.2***	b
	하	2.10(.52)		c

*p<.05 **p<.01 ***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족 1.95, 확대가족 1.89, 핵가족 1.85) 편부·편모가족 아동의 외로움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에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에서 외롭다'에 정상가정아/편부모가정아, 정상가정아/재혼가정아 간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정상가정아/부이별아 또는 모이별아 간에서도 P<.05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황옥자, 1980)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부모 연령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 지각을 살펴보면, 아버지 연령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이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며(45세 이상 1.94, 40세 이하 1.92, 41-44세 1.79) 연령이 높거나 낮은 집단의 아동이 41-44세인 집단의 아동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의 평균값은 (45세 이상이 2.03, 40세 이하가 1.88, 41-44세가 1.78) 41-44세 연령의 어머니의 아동보다 45세 이상 40세 이하의 어머니의 아동이 외로움을 많이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 학력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과의 관계는 (중졸 이하 2.21, 고졸 1.84, 전문대졸 이상이 1.78) 중졸 이하의 집단에서 외로움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에 따라 외로움 평균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버지 학력이 높은 아동이 외로움 지각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학력에 따른 외로움은 (중졸 이하 2.06, 고졸 1.87, 전문대졸은 1.77) 어머니 학력에 따라 외로움 평균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이 높은 아동의 외로움 지각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직업과 아동의 외로움과의 관계는 아버지 직업(생산직 1.95, 자영업 1.94, 농업 1.85, 사무직 1.77, 전문직 1.77)에 따라 외로움 지각정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버지 직업 수준이 높은 아동의 외로움 지각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직업에 따른 외로움은 (자영업 2.05, 농업 1.94, 생산직 1.89, 가정주부 1.85, 전문직 1.76)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아동의 외로움 지각정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자영업 어머니 아동이 외로움을 가장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수준이 높은 아동이 외로움 지각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형제순위에 따른 외로움의 평균값은 (외동 1.99, 중간 1.93, 첫째 1.87, 막내 1.81)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업성적 상, 중, 하 집단별로 외로움은(하 2.05, 중 1.90, 상 1.72) 학업성적에 따라 외로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적이 높은 아동이 외로움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이는 외로움과 학업성취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정영인(198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름만족도에 따른 외로움(만족하지 않는다 1.98, 만족한다 1.92, 정말 만족한다 1.77)은 이름만족도에 따라 외로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아동이 지각한 이름만족도가 높은 아동이 외로움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모만족도에 따른 외로움(만족하지 않는다 2.06 만족한다 1.81 정말 만족한다 1.61)은 외모만족도에 따라 외로움의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외모만족도가 높은 아동이 외로움을 낮게 지

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구수에 따른 외로움은(친구수1-2명 2.27, 5-8명 2.03, 9-10명 1.71) 친구수에 따라 외로움의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친구수가 많은 아동이 외로움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료들 중에서 함께 있음으로 인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친구의 수와 외로움이 관련이 있다고 말한 연구(Cohn, Lohrmann, and Patterson, 1985)의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형제친밀도에 따른 외로움은(친하지 않다 2.00, 친하다 1.94, 정말 친하다 1.68) 형제친밀도에 따라 외로움의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형제친밀도가 높은 아동이 외로움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제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할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외로움과 우울을 더 자주 경험하고 자기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최용주, 1992)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가족분위기에 따른 외로움 (가족분위기 하 2.07, 중 1.90, 상 1.67)은. 가족분위기에 따라 외로움의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분위기가 화목할 수록 아동이 외로움을 낮게 지각하였다. 이는 가족원들간에 응집성이 낮고 갈등이 많으며 사회적이 적고 권위주의적인 역기능적 가족 출신의 청소년이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박선영 · 도현심)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부모의 사랑-수용정도에 따른 외로움(사랑수용정도 하 2.10, 중 1.84, 상 1.69)은 부모의 사랑-수용정도에 따라 외로움의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부모가 아동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정도가 큰 아동이 외로움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 연령, 학력, 직업, 어머니 학력, 학업성적, 이름만족도, 외모만족도, 친구수, 형제친밀도, 가족분위기, 부모의 사랑-수용 등이었다.

2. 또래지위정도와 아동의 외로움

아동의 또래지위정도와 외로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다.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급내의 아동들로부터 긍정적 지명을 많이 받은 아동보다 부정적 지명을 많이 받아 배척되거나 소외된 아동이 외로움을

〈표 5〉 또래지위정도에 따른 외로움

		외로움		
		M (SD)	F	D
인기정도	상 (16~20)	1.53(.38)	70.7***	a
	중 (14~15)	1.84(.43)		b
	하 (4~13)	2.17(.49)		c
고립정도	상 (8~12)	2.34(.48)	120.7***	c
	중 (5~7)	1.90(.40)		b
	하 (3~4)	1.48(.34)		a
공격정도	상 (12~20)	1.98(.47)	6.69**	b
	중 (9~11)	1.89(.48)		b
	하 (5~8)	1.73(.57)		a

***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또래지위정도 하위영역 인기, 고립, 공격에 따라 외로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기정도 상, 중, 하 집단별로 아동의 외로움 지각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외로움 평균값 상 1.53, 중 1.84, 하 2.17)는 인기정도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인기정도에 따라서 아동의 외로움 평균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친구관계 속에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아동들은 외로움을 적게 지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기아동이 또래 속에서 인정받으며 적응을 잘한다는 임여진(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친구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이가 잘 받아들여지는 아이보다 더 큰 외로움을 보인다는 Asher (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고립정도 상, 중, 하 집단별로 아동의 외로움 지각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외로움의 평균값은 (상 2.34, 중 1.90, 하 1.48) 고립정도와 아동의 외로움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고립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외로움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더욱 많이 느낀다는 정영인(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공격정도의 상, 중, 하 집단별로 아동이 지각하는 외로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공격정도 상 1.98, 중 1.89, 하 1.73)는 공격정도의 집단별로 아동이 지각한 외로움의 정도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격정도가 높은 아동이 외로움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립이나 공격정도가 높은 아동이 인기가 많은 아들보다 외로움을 높게 인식하는 결과는 아동의 사회축정적 지위와 아동의 외로움 감정, 사회적 불만족간에 관련이 있다는 Asher, Hymel (1984)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또한 고립아동과 공격성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자기평가에서 외로움과 우울을 더 자주 경험한다는 (최용주, 1992)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래지위를 아동의 심리/환경적 변인 중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심리/환경적 변인에서 독립시켜 또래지위정도와 외로움을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또래지위의 하위영역 인기, 고립, 공격

정도에 따라 외로움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인기정도가 높은 아동은 외로움 지각정도가 낮았고 고립, 공격정도가 높은 아동은 외로움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립, 공격 중에서 고립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이 공격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보다 외로움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외로움을 종속변수로 할 때 이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단계적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

〈표 6〉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

		상관 계수	I		II		III		IV	
			b	Beta	b	Beta	b	Beta	b	Beta
환경	가족분위기	-.33***	-.22***	-.23	.02	.02	.03	.29	.02	.03
	부모사랑-수용	-.36***	-.23***	-.28	-.09*	-.11	-.08*	-.09	-.07*	-.09
또래지위	인기	-.59***			-.25***	-.29	-.21***	-.24	-.20**	-.23
	고립	.68***			.35***	.50	.33***	.47	.32***	.46
	공격	.26***			.03	.04	.05	.05	.07	.08
심리 변인	학업성적	-.23***					-.09	-.23	-.00	.00
	외모만족도	-.28***					-.02	-.02	-.03	-.03
	이름만족도	-.22***					-.03	-.05	.03	-.04
	형제친밀도	-.28***					-.01	-.02	-.00	-.01
	친구수	-.43***					-.07*	-.10	-.07*	-.10
사회 인 구 학 적 변 인	성별 : 남 ^d	-.01							-.05	-.05
	학년: 5 ^d	.07							.00	-.01
	가족형태 ^D 확대가족	.01							.04	.03
	기타가족	.04							-.02	-.01
	형제순위 ^D 중간	.07							.02	.02
	막내	-.08							-.05	-.04
	외동	.02							.01	.01
	아버지 연령	.01							.05	.07
	아버지 학력	-.21***							-.03	-.03
	부직업 ^d 농업	-.01							-.03	-.02
	사무직	-.15*							-.00	-.01
	자영업	.09*							-.07	-.06
	전문직	-.07							.04	.02
	어머니연령	-.02							-.05	-.05
	어머니 학력	-.16*							-.05	-.06
	모직업 ^d 농업	.05							-.05	-.02
	생산직	.02							-.04	-.03
	자영업	.11*							.16*	.09
	전문직	-.11*							-.05	-.04
R^2			.18		.55		.56		.59	
R ² 변화량				.18***		.38***		.01		.03

유의도: *** P<0.001 ** P<0.01 *P<0.05

^d: 모조변수(여학생, 6학년, 핵가족, 첫째, 부직업: 생산직, 모직업: 가정주부 생략)

과 같다. 독립변수들을 4개의 변수군으로 군집화하여 I, II, III, IV의 모델들을 차례대로 삽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변수군 I은 가족분위기·부모의 사랑·수용변인, 변수군 II는 변수군 I에 또래지위정도를 추가하였고 변수군 III은 변수군 II에 심리적 변수(학업성적, 외모만족도, 이름만족도, 형제친밀도, 친구수)들을 추가하였고 변수군 IV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변수군을 나누는데 있어서 심리/환경적 변인 안에서 기술하였던 가족분위기와 부모의 사랑·수용변인을 분리시켰는데, 이는 아동의 심리변인과는 다른 부모 변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일차원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변수의 순효과를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단계 I의 결과를 살펴보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분위기($\beta = -.22^{***}$), 부모의 사랑·수용($\beta = -.23^{***}$)으로 외로움변수의 변량가운데 18%(R^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분위기와 부모의 사랑·수용이 외로움에 유의미한 순효과를 가지고 있고 외로움과 부적인 관계임을 보이고 있었다. 즉 가족분위기가 좋을수록 부모의 사랑·수용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외로움의 지각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단계 II는 단계 I에 또래지위정도(인기·고립·공격) 변인을 삽입하였다. 단계 II의 결과를 살펴보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고립($\beta = .35^{***}$), 인기($\beta = -.25^{***}$), 부모의 사랑·수용($\beta = -.09^{**}$)이 아동의 외로움과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정도와 부모의 사랑·수용은 아동의 외로움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인 반면, 고립정도는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외로움을 설명하는 정도는 55%이었다. 기존의 변수 가족분위기와 새로운 변수 공격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였고 가족분위기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순효과가 사라졌다. 이들 변수가 추가된 후 설명력은 38%가 증가함으로써 또래변인이 외로움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단계 III은 단계 II에 아동의 심리적 변수(학업성적, 몸매만족, 이름만족, 형제친밀도, 친구수)를 삽입하였는데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고립정

도($\beta = .33^{***}$), 인기정도($\beta = -.21^{***}$), 부모의 사랑·수용($\beta = -.08^{*}$), 친구수($\beta = -.07^{*}$) 등이었다.

아동의 고립정도는 외로움에 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인기정도, 부모의 사랑·수용, 친구수 등은 부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이 외로움을 설명하는 정도는 56%정도이며 추가한 변인들 중에서는 아동의 친구수 만이 외로움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 변량은 1%가 증가하였다.

단계 IV는 단계 III의 변수군에 사회인구학적 변수군인 아동의 성별, 학년, 가족형태 등을 dummy 변인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또래지위의 고립($\beta = .32^{***}$), 인기($\beta = -.20^{**}$), 어머니의 자영업($\beta = .16^{*}$), 부모의 사랑·수용($\beta = -.07^{*}$), 친구수($\beta = -.07^{*}$) 등으로 나타났다. 고립정도, 어머니의 직업이 자영업인 경우 외로움에 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인기정도, 친구수, 부모의 사랑·수용은 외로움에 부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단계 III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추가한 상태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부모의 사랑·수용변인의 순효과가 감소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어머니의 직업이 자영업인 경우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났는데 추가된 설명변량은 3%이었고 외로움을 설명하는 전체변량은 59%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변수군별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아동의 외로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동의 또래지위로써 아동이 지각하는 인기정도나 친구 관계 속에서의 아동이 지각하는 고립정도가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동이 지각하는 인기정도가 아동의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정도보다 아동이 지각하는 고립정도가 아동의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큼으로서 아동기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이 그들의 또래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사랑·수용과 친구수 등이 외로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변수들이 증가할 때마다 부모의 사랑·수용의 β 값의 크기가 감소하고 방정식 IV에서 친구수와 동등한 값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아동의 외로움에 친한 친구가 있고 없음 또는 많고 적음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들 즉 거절당하는 아동이 한명 이상의 친구를 갖고 있을 경우 외로움 등 심리적 부적응을 덜 경험한다는(Coie & Dodge, 1983) 연구결과와 친한 친구의 수는 주관적으로 보고한 우정 관계망과의 관련성보다 더 높은 상관성이 있다(Cohn, Lohrmann, and Patterson, 1985 : 이현정, 1994)는 결과들과 일치하였으며 또래수용정도가 낮은 아동이 단짝친구를 갖고 있는 경우 외로움, 우울, 학교 부적응, 비행 등의 부정적 결과가 완화된다(Parker & Asher, 1987)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과정을 통하여 얻은 결과에 대한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외로움과 관련있는 사회인구학적/심리환경적 변인과 또래지위지각정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인구학적/심리환경적 변인 중 아버지 연령, 학력, 직업, 어머니 학력, 학업성적, 이름만족도, 외모만족도, 친구수, 형제친밀도, 가족분위기, 부모의 사랑-수용 등은 아동의 외로움과 관련이 있었다.

또래지위지각정도와 아동의 외로움의 관계는 또래지위의 하위영역 인기, 고립, 공격정도에 따라 외로움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인기정도가 높은 아동은 외로움 지각정도가 낮았고 고립, 공격정도가 높은 아동은 외로움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립, 공격 중에서 고립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이 공격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보다 외로움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호관련 있는 변수들을 다중회귀분석하여 각 변수들이 아동기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의 순 효과를 구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로는 또래지위 하위영역 중 고립, 인기, 어머니직업이 자영업, 부모의 사랑-수용, 친구 수 순으로 아동이 느

끼는 외로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인기정도가 아동의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고립정도가 아동의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더 큼으로 보아서 아동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아동의 고립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모, 교사가 지도할 때는 아동의 인기보다 아동이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고 있지않는지를 더욱 고려할 것이다.

특히 어머니 직업이 자영업인 경우 아동의 외로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직업보다 생활이 불규칙적이고 어머니가 아동에게 신경을 써주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어머니가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는 대화기술 등 부모역할하기 기술을 획득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아동기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아동의 외로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또래지위의 지각정도로 나타났는데 아동행동을 지도함에 있어 부모, 교사는 또래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등 또래와의 관계가 잘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재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 특히 어머니의 직업이 자영업인 경우 짧은 시간에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절 높은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부모역할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소수 지역에만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좀더 일반적인 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지역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변인으로서 가족분위기, 부모의 사랑-수용, 또래지위 등 심리환경적 변인의 일부와 사회인구학적 배경만을 다루었는데 아동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질 등 다른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변수들을 추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또래지위를 측정하는데 있어 아동 스스로 자신에 대해 보고하는 형식을 사용하였는데 실제 선생님의 평가나 친구들의 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가 병행되지 않은 점이다. 또래관계에서의 지위 관찰을 위해 비디오촬영이나 직접 관찰법을 사용하여 정밀한 관찰에 의한 자료수집과 우리 실정에 맞게 또래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넷째, 아동의 자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록 또래관계가 원만하고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록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볼 때 또래관계가 어려운 아동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아동의 친구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접 수 일 : 2001년 9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10월 21일

【참 고 문 헌】

- 김경집(1996). 아동의 또래지위와 자아지각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1996).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6), 1-11.
- 도현심(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9.
- 도현심(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0(3), 33-49.
- 박선영·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9(1), 229-244.

신재은(2000). 초기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18(1), 153-164.

양계민(1993).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선경(1986). 용모, 선호, 성격정보가 아동의 대인 매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미(1990).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와 사회측정적 지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환·박성옥(1991). 아동의 친구관계, 양서원.

이은해·오원정(2000). 아동의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지각의 관계, Yonsei Journal of Human Ecology 14, 36-48.

이은해·임연진(1994).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2(1), 119-131.

이현정(1994). 아동이 지각한 교우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경원(1997).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분위기가 청소년의 또래공격성 및 또래희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영인(1988). 人氣度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 및 學業成就에 關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보가·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최용주(1992). 학령기아동의 친구관계에 따른 대체지지에 관한 연구-학교친구, 학교 외 친구, 형제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경미(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 외 학교적 용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교육학과 초등교육전공.

황옥경(1989). 부모와 교사가 지각한 배척, 소외아동의 행동상의 문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옥자(1980). 부모의 이혼이 자녀생활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her,S.R., J.T.Parkhurst, S.Hymel, G.A.Williams(1990).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hood, in
Asher, S. R. Coie, J.D.(1990).『Peer rejection
in childhood』(253-27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her, S. R., & Wheeler, V. A.(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00-505.
- Asher, S. R., Hymel, S.,& Renshaw, P. D.(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 Berndt, T. J.(1981). Effects of friendship in prosocial
intention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636-643.
- Bierman, K. L., & Furman, W.(1984). The effects of
social skills training and peer involvement on the
social adjustment of pre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5, 151-162.
- Catherine L, Bagwell, Andrew F, Newcomb, and
William M, Bukowski(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Cassidy, J., & Asher, S. R.(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ohn, D. A., Lohrmann, B.C.& Patterson, C.(1985).
Social networks and loneliness in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oronto, Ontario.
- Coie, D. A., Martin, Joan M., Peeke, Lachlan A.,
Serozynski, A. D., Fier, Jonathan(1999). Children's over and underestimation of academic
competence: A longitudinal study of gender
differences, depression, and anxiety, *Child
Development* 70, 459-473.
- Coie, J.D., & Kupersmidt, J. B.(1983). A behavioral
analysis of emerging social status in boy's
group, *Child Development* 54, 1400-1416.
- Coie, J.D., Dodge, K.A., & Coppotelli, H.(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Franzoi, S.L., Davis M.H.(1985). Adolescent self-
disclosure and loneliness;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parental infl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768-780.
- Gottman, J. M., Gonso, J., & Rasmussen, B.(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ompetence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51,
1149-1156.
- Hartup, W. W.(1983). Peer relations. In P.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 Wiley.
- Hojat, M.(1982). Loneliness as a function of parent-
child and peer relations, *Journal of Psychology*
112, 129-133.
- Jones, W . H., Freeman, J. A., & Goswick, R. A.
(1981). The persistence of loneliness: Self and
other determinants. *Journal of Personality* 49,
27-48.
- Kenneth H Rubin Hildy S, Ross.(1990).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in 『Peer
rejection in childhood』Cambridge University
Press. .
- Ladd, G. W.(1983). Social networks of popular,
average, and rejected children in school settings,
Merell-Palmer Quarterly 29, 283-307.
- Lerner, R.M. & Lerner, J.V.(1977). Effects of age,
sex,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n child-peer
relations, academic performance, and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

- gy 13, 585-590.
- Mannarino, A. P.(1978). Friendship patterns and self-concept development in preadolescent mal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3, 105-110.
- Mc David, J. W., & Harari, H.(1966). Stereotyping of names and popularity in grade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37, 453-459.
- Olweus, D.(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H. Rubin & J. B. Asendor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315-341),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rry, J. C.(1979). Popular, amiable, isolated, rejected: A re conceptualization of sociometric status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0, 1231-1234.
- Putallaz, M.(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Putallaz, M., & Gottman, J. M.(1981). Social skills and group acceptance. In S. R. Asher & J. M. Gottman(Ed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riendship*,(116-149).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 Rubenstein, C. M. & Shaver, P.(1982).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206-223). New York: Wiley-Interscience.
- Rusell, D., Peplau, L., A.. & Cutrona, L.,E.(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480.
- Sandstorm, Marlene J : & Coiem John D.(199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peer 955-966.
- Shaver, P. & Rubenstein, C.(1980). Childhood attachment experience and adult loneliness, In L. Wheala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2-73).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Sullivan, H. S.(1953).『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Vaughn, B. E., & Langlois, J. H.(1983). Physical attractiveness as a correlate of peer status and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9, 561-567.
- Weiss, R. S.(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